

11-14-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잠언 11:1-31

본문: 요한일서 3:1-10

제목: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신부들의 삶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세지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와 환란 때에 회개하는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같이 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은 성령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의 삶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했다:

“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시 17:15)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부활하였을 때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마 27:51-54)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엡 1:4,5)고 증거하였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피조물과 같이 고통받을 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소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거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같이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롬 8:17, 18, 22, 23)

다시 말해서 썩을 몸이며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몸을 입을 소망에 대한 말씀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소망에 대한 증거인 것이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선교에 희생제물같은 형금으로 동참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증거를 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같이 변모시키리라.” (빌 3:20, 21)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고 권면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골 3:4-6)

그렇다!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와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들에게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요일 3:3)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동시에 자신을 정결케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한 마디로 요약하였으며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증거하였으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했다 (요일 3:6-9).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증거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요 15:4-8)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맺는 열매는 주님과 갈아지는 성품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 열매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갈 5:22-25) 열매들(복수)이 아니고 열매(단수)임에 주목하자!

그렇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며, 동시에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정결한 삶을 살라는 메세지 역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이다. 정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다:

“너희가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 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엡 5:5-9)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맺어짐을 분명하게 증거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고전 2:1-5)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요 15:2)고 말씀하셨다. 주 안에 거함으로 죄와 상관 없는 삶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 성령과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더욱 더 정결한 삶이 되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들로 나타나는 축복에 참여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11-14-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roverbs 11:1-31

Main scripture: 1John 3:1-10

Subject: The life of the Bride that hope to appear with Christ

What is the message unto us through the whole scriptures? It is the kingdom in the heaven and the earth consisting of the Remnant of Israel, and the bride of Christ born again church of the Spirit through the gospel of Christ, and the Remnant of the Gentiles that repent in the Great Tribulation. Especially, in the main passage, Apostle John testifies of the life of the born again bride of Christ to meet Christ when he come again. They that have the hope to be like Christ when he comes are neither the Jews nor the Gentiles, but the bride of Christ that shall participate in the first resurrection. King David who had lived thousands years testified of the purpose of life understanding the truth in the Spirit:

“As for me, I will behold thy face in righteousness: I shall be satisfied, when I awake, with thy likeness.”(Ps. 17:15)

King David must have been one of the saints that had slept

And resurrected when Christ rose again from the dead (Matt. 27:51-54).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bride of Christ as well as the children of God saying, according as he hath chosen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ame before him in love: having predestined us unto the adoption of children by Jesus Christ to himself,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Eph. 1:4,5) He also testified of the hope of the children of God as well as the bride of Christ that are to suffer with other creations:

“And if children, then heirs; heirs of God, and joint-heirs with Christ; if so be that we suffer with him, that we may be also glorified together. For I reckon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 ²²For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groaneth and travaileth in pain together until now. And not only they, but ourselves also, which have the firstfruits of the Spirit, even we ourselves groan within ourselves, waiting for the adoption, to wit, the redemption of our body.”(Rom. 8:17,18,22,23)

In other word, this is the hope of putting off the corruptible and mortal body to put on the new body that is not corruptible and immortal body; and the hope to be changed into the same image as 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unto the saints of Philippians that participated in the his mission ministry with the sacrificing offering: **“For our conversation is in heaven; from whence also we look for the Saviour, the Lord Jesus Christ: Who shall change our vile body, that it may be fashioned like unto his glorious body, according to the working whereby he is able even to subdue all things unto himself.”(Phil. 3:20,21)**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same hope unto the saints of Colossians; and he encouraged them to overcome the lust of the flesh:

“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then shall ye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 Mortify therefore your members which are upon the earth; fornication, uncleanness, inordinate affection, evil concupiscence, and covetousness, which is idolatry: For which things'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Col. 3:4-6)

Yes! Apostle John encouraged the saints that have the hope to appear with Christ with the glorious body when he appears in his glory: **“And every man that hath this hope in him purifieth himself, even as he is pure.”(1John 3:3)**

At the same time, he summarized of the pure life in a word as “Not sin!” He also said, whosoever abides in him sins not: whosoever sins has not seen him, neither known him. He that commits sin is of the devil. Whos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commit sin; for his seed remains in him: and he cannot sin, because he is born of God (1John 3:6-9).

Apostle John, remembering the final word of Jesus before he was arrested, testified of “The one that abides in Him”:

“Abide in me, and I in you.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except it abide in the vine; no more can ye, except ye abide in me. I am the vine, ye are the branches: He that abideth in me, and I in him, the same bringeth forth much fruit: for without me ye can do nothing. If a man abide not in me, he is cast forth as a branch, and is withered; and men gather them, and cast them into the fire, and they are burned. If ye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ye shall ask what ye will, and it shall be done unto you. Herein is my Father glorified, that ye bear much fruit; so shall ye be my disciples.”(John 15:4-8)

Then, what kind of fruit was asked to bring forth by him? This must be the fruit of the same character of the Lord through abiding in him.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fruit unto the saints of Galatians: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Meekness, temperance: against such there is no law. And they that are Christ'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the affections and lusts. If we live in the Spirit, let us also walk in the Spirit.”(Gal. 5:22-25)

Yes! Lord Jesus was talking about the fruit of the Spirit. Apostle John also asked to have pure life bearing the fruit of the Spirit through his message, because only Christians that have pure

life could be the joint-heir with Christ through the first resurrection. Apostle Paul also testified of them that failed in the pure life:

“For this ye know, that no whoremonger, nor unclean person, nor covetous man, who is an idolater, hath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of God. Let no man deceive you with vain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cometh the wrath of God up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Be not ye therefore partakers with them. For ye were sometimes darkness, but now are y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For the fruit of the Spirit is in all goodness and righteousness and truth;)”(Eph. 5:5-9)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fruit of evangelism being born through the fruit of the Spirit very clearly:

“And I, brethren, when I came to you, came not with excellency of speech or of wisdom, declaring unto you the testimony of God. For I determined not to know any thing among you, save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And I was with you in weakness, and in fear, and in much trembling. And my speech and my preaching was not with enticing words of man's wisdom, but in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power: That your faith should not stand in the wisdom of men, but in the power of God.”(1Cor. 2:1-5)

Lord Jesus spoke unto his disciples,
“Every branch in me that beareth not fruit he taketh away: and every branch that beareth fruit, he purgeth it, that it may bring forth more fruit.”(John 15:2)

What about participating in the blessing that appear as the glorious bride when he appears in his glory through much more pure life bearing the fruit of the Spirit as well as evangelism abiding in HIM? **Hallelujah!**